

“바이든 취임 100일내 ‘트럼프 뒤집기’ 속도전”

CNN 보도...코로나 저지·이민법 개정·기후변화 대처 등 우선순위 경제·인종 갈등 문제 직면...공화당 상원 과반 유지엔 입법 차질 전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일련의 행정명령을 통해 취임 초 빠르게 국정 운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고 나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침체, 인종 갈등 등 동시다발적이면서도 복잡한 문제를 직면할 것이라고 CNN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가장 먼저 미국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도 어려운 코로나19 백신 보급과 경제 회복

이라는 난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 초 100일간 추진해야 할 우선 과제는 광범위한 경제 부양안의 의회 통과와 입법화가 필요 없는 행정명령을 통한 정책 집행이 될 것이라고 바이든 측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CNN이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민법이나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부를 이용했던 전례와도 결별할 방침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바이든 측 관계자는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하면 백악관이나 행정부 고위 관료가 법무부나 검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이러한 명령을 어길 경우 해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당선인 구상의 입법화는 대통령 취임식을 2주 앞두고 열리는 2석의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상원은 과반을 유지하는 공화당 소속 미치 매클널 원내대표 통제에 놓이게 되고,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은 첫 단추부터 막히게 될 개연성이 크다. 예컨대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추진키로 한 이민법

개정이 곧바로 좌절될 수밖에 없다.

다만 현재로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최우선 관심사는 코로나19 확산 저지여서 그전까지 다른 입법 과제는 뒷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게 바이든 당선인 측의 설명이라고 CNN이 밝혔다. 게다가 하원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과반이지만 공화당과의 의석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 때문에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초당적 지지를 얻거나,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안을 동시에 추진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의회 협력 여부에 따라 정책의 상당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국 이어 루마니아에도 등장됐다 홀연히 사라진 ‘미스터리 금속기둥’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북동부 피아트라 님트시의 한 언덕에서 정체불명의 금속기둥(모노리스)이 나타났다. 이 기둥은 비슷한 시기 미국 유타주 사막에서 사라졌던 금속 기둥과 비슷한 모양과 크기이다. 루마니아 당국자는 이 기둥이 누구의 소유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곳 기둥도 곧 사라져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끝나도 출장 최대 36% 줄 것” 월스트리트저널 전망

코로나19 사태가 해소돼도 향후 업무 출장용 비행이 많으면 36%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항공교통 전문가 스티븐 매카트니는 항공업계 전문가 3명과 출장 비행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결과가 이같이 전망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각국이 봉쇄령을 도입하자 기업들이 화상 회의 등으로 출장을 대체하는 데 익숙해지면서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종식돼도 출장 비행이 약 19~3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무용 출장을 목적별로 분류한 결과 일부 종류는 특히 되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일례로 사내 회의나 직원훈련을 위한 출장은 앞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대거 대체되고, 코로나19 이전에 비행기로 통근했던 직원도 주로 재택근무를 계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술적 지원을 위한 출장으로 원격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왔다.

반면 영업 출장, 전시회 같은 행사 참여용 출장은 대체로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대형 행사는 사업 기회와 고객을 확보하고 경쟁사 현황을 파악하는 효율적인 방안으로 원격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매카트니는 설명했다.

업무용 출장이 감소하면서 항공 업계 지형도 크게 변화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항공사는 회사의 경비로 비용을 내는 출장용 승객에게 높은 편익을 받고 여행객의 편익은 낮게 책정하는 수익 구조로 운영된다.

/연합뉴스



미 LA ‘무료 식료품 배급’ 줄 선 차량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거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먹거리 조달이 불안정한 주민들이 무료 식료품을 받기 위해 타고 온 차량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LA 리저널 푸드뱅크에서 지난 한 달간 공급한 무료 식료품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145% 늘어났다.

/연합뉴스

‘베를린 소녀상’ 철거없이 영구 존치...지역의회 결의안 의결

‘평화의 소녀상’이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 영원히 머물게 될 전망이다. 철거명령의 대상이었던 소녀상은 내년 9월 말까지 존치되며, 소녀상 영구 설치를 위한 논의도 시작된다.

베를린시 미테구의회는 1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의결했다. 프랑크 베르테르만 의장(녹색당)은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말했다.

표결에는 구의원 29명이 참여해, 24명이 찬성했고, 5명이 반대했다. 베를린 연립정부 참여정당인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좌파당 등 진보 3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기독교민주당과 자

유민주당에서 나왔다. 녹색당과 좌파당이 공동결의한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구의회의 참여하에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틸로 우르히스 좌파당 구의원은 의안 설명에서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이나 군사 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고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면서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소녀상의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이런 구조적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서 “평화의 소녀상이 우리 구에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기 바라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내년 8월 14일이었던 설치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앞서 미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다. 소녀상은 지난 9월 말 미테 지역 거리에 세워졌다. 그러나 설치 이후 일부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지난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비만’ 고대 비너스는 빙하기 혹독한 삶이 낳은 산물 “영양 결핍과 스트레스 영향”

인류의 대표적인 초기 예술품 중 하나로 꼽히는 고대 비너스상은 한결같이 풍만한 배를 갖고 있다. 임신 중이거나 풍성한 여성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문에 오랫동안 다산을 기원하거나 당시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이 고대 비너스상이 빙하기의 혹독한 삶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새로운 해석을 담은 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대학교 파르먼 이 대학 의과대학교 수리처드 존슨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유럽 각지에서 발굴된 고대 비너스상의 허리과 엉덩이, 허리와 어깨 비율을 측정하고 비교해 얻은 결과를 학술지 ‘비만’(Obesit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고대 비너스상이 만들어진 약 3만 년 전 유럽 지역은 빙하기로 수렵채집 생활을 하던 인류에게 비만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비너스상은 당시의 극심한 영양 결핍 스트레스와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의 수반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학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유아교육과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29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 7(목) ~ 11(월) · 전형일: 2021. 1. 18(일)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30
		성경연구학과(Th.M.)	10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6
		상담심리치료학과(D.C.S.)	7
		코칭심리학과(D.Psy.)	7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5
		휴먼서비스교육학과(D.Ed.)	12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10
		신학과(Th.M.)	14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코칭심리학과(M.Psy.)	10
		재활심리치료학과(M.A.)	10
		사회복지학과(M.S.W.)	15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휴먼서비스교육학과(M.Ed.)	8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6
		실용음악학과(M.A.)	6

■ 전형일정

일반전형
· 원서접수: 2020. 11. 30(월) ~ 12. 9(수)
· 전형일: 2020. 12. 11(금)/12(토)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영산리길30-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